

익산시, KTX혁신도시역 신설 논의에 반발

정현을 익산시장, "KTX익산역 전북도민 위한 역, 신설 절대 안돼"

익산시가 KTX혁신도시역 신설 논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30일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익산역은 전북도민을 위한 역"이라며 "저속철 되는 KTX혁신도시역 신설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는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요충지이며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분기하는 철도 교통의 중심이자 호남의 관문역으로써 충실한 역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익산역은 하루 220회 열차가 서고 2만여명의 이용객이 모이는 호남 철도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익산역을 확장하려는 의견이 나오는 시점에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역 신설을 주장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KTX혁신도시역이 신설될 경우 고속철도의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혁신도시역이 신설될 경우 익산역과

14km 거리에 위치하게 돼 최소 안전제동 거리인 40km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로 인해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익산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465억원을 투입해 서부역사 진입로 8차선 확장, 익산역 서부주차장 372면 무료 개방, 시외버스 증차 운행 등에 나서고 있다.

혁신도시역 신설 주장에 대해 익산시는 해결 방안으로 전북권 도시전철망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기존 국철의 여유 선로를 활용하는 '전북권 도시전철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반영,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북과 충남권 일부 주민이 도시전철망을 통해 익산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또 혁신도시역 신설 주장은 전북도민의 민심을 분열시키게 된다는



지난 30일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익산역은 전북도민을 위한 역"이라며 "저속철 되는 KTX혁신도시역 신설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현을 시장은 "KTX혁신도시역 신설 논란은 도민의 민심을 분열, 조장시킬 뿐"이라며 "호남선의 저속철 사

태를 좌시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의 자긍심인 KTX 익산역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건축문화상' 수상작 선정

나운동 소재 '바다빛집' 금상 수상

군산시는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지난 23일 군산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상과 은상, 동상 각 1점씩 총 3점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군산시 건축문화상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용 승인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부분 3점, 일반부분 6점, 주거부분 2점, 총 1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군산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영예의 금상에는 나운동 소재 바다빛집이 선정되었고, 은상에는 지곡동 소재 '갤러리 해밀', 동상에는 마룡동 소재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선정됐다.

제4회 군산시 건축문화상의 금상을 수상한 '바다빛집'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밀접한 소용·친근감이 높은 건축디자인과 주변 여건과의 조화, 이용자의 편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저변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건축인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 건축문화상을 앞으로도 개발지속가능성·친환경성·차별성에 주안점을 두고 더욱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대한체육회, 익산 전국체전 사전점검 실시

대한체육회는 지난 29~30일까지 2018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를 방문하여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사전점검은 전국(장애인)체전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성공적인 체전을 위하여 분야별 운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익산시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전국체전준비단과 전라북도 체육회, 익산시 전국체전 담당관, 익산시 체육회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체전 추진계획 프레젠테이션을 보고받고 성공체전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과 종목별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며 당일의 사전점검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은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회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분야별로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전점검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28.)은 주 개최지인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정양원 기자

농민이 직접 만든 가공제품 대형유통채널 진출

군산쌀로 만든 조청, 4일 공영홈쇼핑 통해 판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관내 농가가 생산한 군산쌀로 만든 조청이 그 품질과 신뢰도를 앞세워 홈쇼핑 판매에 진출해 첫 방송에서 '완판'을 노린다.

오는 12월 4일 오후 5시부터 50분간 공영홈쇼핑을 통해 방송되는 '농부의 식품공장 쌀조청'은 관내 4곳의 농가가 모인 공동체 '청안밭 농부들(대표 농가 문영미)'에서 만든 조청이다.

최근 인기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에서는 농부

가 직접 만든 로컬푸드 가공식품으로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와 부가 가치를 높이고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 '농부의 식품공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헬쌀을 사용하고 물엿을 대신할 조리용 조청으로 상품화된 군산쌀조청은 묵은쌀을 사용하지 않아 맛이 신선하고 직접 기른 엿기름을 사용해 전통 쌀조청의 풍미와 적당한 당도를 가지고 있다.

우수한 국내 농축수산물을 제공하는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쌀조청 3개, 생강 쌀조청 3개 등 6개가 한 세트(39,900원)로 구성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공영홈쇼핑 진출은 관내 농가들의 농산물가공 제조기술과 상품화에 힘을 쏟던 군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문영업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홈쇼핑 방송을 통해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농민 가공제품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민의 가공식품 상품화뿐만 아니라 농민 가공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셜커머스, 인터넷 오픈마켓, 농협 하나마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도부터 학교급식에 조청을 포함하여 과제유료를 공급하고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예산 증액과 연계해 전략적인 지역농산물 가공제품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장자도 펜션단지 신축 불허가 소송 항소심 승소

군산시는 지난 2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장자도 일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서는 2015년 11월 옥도면 장자도리 일원에 신청된 28동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 건을 고군산군도 전체의 자연환경자원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건축주는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과 함께 전북도에 행정심판,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1심)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군산시의 행정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지난 2월 27일 광주고등법원(전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과 현장검증을 거친 후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앞으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고군산군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송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기업 맞춤형 가공용 쌀 원료곡 1만톤 공급 확정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대한민국 대표 식자재 유통업체인 CJ프레시웨이(대표 이사 문종석)에 2018년 가공용 쌀 원료곡 1만톤을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공급확정에 따라 익산시는 관내 지역에 1,000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원활한 단지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과 협력하여 70여톤의 종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가공용 쌀 생산단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배매뉴얼에 따라 철저

하게 생산단지를 관리하고, 품질지정을 통해 품질향상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벗짚환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업 맞춤형 가공용 쌀 원료곡 공급으로 인해 익산 쌀 소비확진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단지조성과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쌀은 물론 다른 농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